

미주세계일보	38-42 9th St. LIC NY 11101 대표전화(718)361-2600, FAX(718)361-2368-2487 http://www.koreasegye.com
日本支社	〒150-0001 東京都 渋谷区 神宮前 5-29-9-602 號 TEL:(03)3409-1303 FAX:(03)3409-1208 郵便振 口座 00120-7-578653
워싱턴타임스	3600 New York Avenue, N.E. Washington, D.C. 20002 TEL:(202)269-5325, FAX:(202)526-7583 http://www.washtimes.com



유럽본부 (GERMANY/ FRANCE)	Yoon, Nam-Soo/Hugenotten str. 63A 61381 Friedrichsdorf Tel:(06172)75873, Fax:(06172)75830, Handy:0171-625-9471
	Hyun, Ho-Cyun/Hasengasse 17.60311 Frankfurt Tel:49 69-231-333 H.P:49-171-624-2366
	Kim, Gou-Hyun/26, rue Sambre et Meuse 75010 Paris FRANCE Tel:01-42-01-40-12

在獨 연극단체 살풀이 극단 新作 '바리공주' 베를린서 개막

다국적 문화교류 통로 열었다

○재독 연극단체인 살풀이 극단(단장 강숙이)의 신작 '바리공주' 공연이 9월 24일 저녁 베를린 Werkstatt der Kulturen(문화작업장)에서 첫 막을 올렸다. 한국 무당의 시조인 '바리공주' 설화를 우리 시대의 '바리'라는 시각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소개했다.

네명의 한국 배우와 세명의 독일 배우가 9주 동안 언어와 문화의 계도를 넘어 한국 무속의 무조 설화라는 쉽지 않은 주제로 다국적 문화 교류의 통로를 열었다.

동해안 무가(巫歌)로 전해지고 있는 바리공주(바리데기) 신화의 내용을 보면 동해안 불라국에 오귀 대왕과 갈대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딸만 낳던 이들 부부가 일곱번째 낳은 딸을 바리데기라 이름짓고 신에다 바렸다. 세월이 흐른 뒤 오귀 대왕은 큰 병에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였다. 병을 고치려면 서천 서역국에 가서 약수(藥水)를 구해 와야 한다는데, 갈 사람이 없었다. 그때 부인이 꿈에 계시를 받고 산으로 가 바리데기를 찾는다. 신령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내고 있던 바리데기는 부모와 만나자마자 자칭해 약수를 구하러 길을 떠난다. 그 뒤 우여곡절을 겪으며 서천 서역국에 당도해 약수를 지키는 동수자와 결혼해 아이 셋을 낳은 다음 비로소 약수와 신비한 꽃을 얻어 불라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아버지인 오귀 대왕은 이미 죽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 깜짝 놀란 바리데기가 죽은 아버지의 입에 약수를 넣어 놓자 죽었던 대왕이 살아났다. 바리데기는 그 공적으로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오구신이 된다는 내용이다.

극단 관계자는 "바리공주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병든 아버지의 생명을 살렸던 가 결국 살려내는 이야기를 통해 빠르게 판단하고 바쁘게 생활해야 하

韓·獨 배우 7명 작품 함께 만들어 한국문화 이해위해 비디오·책 사용

며, 흑백논리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긴 후에야 진정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자가 되며, 고정관념에 빠지기보다는 유연력 있고 탄력성 있는 인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연극을 만들고자 처음으로 독일·한국 배우가 함께 작업한 작품을 만들었고, 언어적·문화적 충돌 때문에 신체적으로 교감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배우들이 잘 견뎌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독일 배우들과 함께 이 연극을 연습한 한 한국 배우는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같은 단어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 시간이 배로 걸렸고, 전통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이어서 연습 초반에 독일 배우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비디오나 책 등 참고자료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4시간에 걸친 첫 공연을 마친 후 관객들과 배우·관계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공연은 25일과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후 8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베를린=김효진 통신원

